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30일 목요일 음 1월 6일 (13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는 남부지방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6~7℃, 낮 최고 기온은 9~11℃의 분포를 보이겠다. 산지에는 박무가 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제주, 오후. Rows show 60% precipitation probability for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sunrise at 07:32 and sunset at 10:38.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forecasts for tomorrow (cloudy) and the day after (partly clo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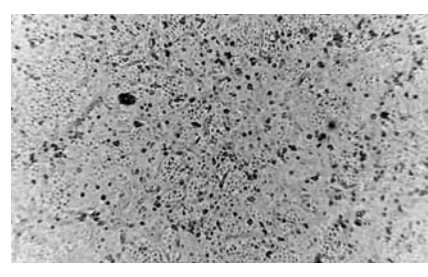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food poisoning index (caution) and cold index (normal).

월드뉴스

호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배양 성공

항체 검사 개발에 사용

호주의 한 연구소에서 '우한 폐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재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호주 ABC방송을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도허티연구소에서 제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호주 멜버른대의 피터 도허티 감염·면역 연구소(이하 도허티 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얻어 이날 추가로 배양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밖 연구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생산된 최초의 사례다.

염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항체 검사를 개발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연구진은 배양한 바이러스 샘플을 세계보건기구(WHO), 전 세계 연구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재생산했지만, 이들은 외부에 바이러스 샘플을 공유하지 않고 유전자 서열 정보만 공개했다. 도허티 연구진은 이 정보를 토대로 바이러스를 재생산해 낼 수 있었다고 ABC방송은 밝혔다.

도허티 연구소의 부소장인 마이크 케턴은 ABC방송에 이 샘플은 앞으로 백신 개발 작업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샘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29일 0시 현재 중국 31개 성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5974명, 사망자는 132명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목요일론



김안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우영에 든 핥 놔둬 밧디핑 심젠한다

땃밭에 들어온 핥을 놔두고, 들판에 있는 핥부터 잡으려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속담이다. 어쩌다 들어왔지만, 핥은 짹째 날아갈 공리를 한다.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핥 사냥과 핥영을 알아주었다. 마을 주변에 소낭밭이나 오름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핥사냥터이다. 핥소 친분이 좋아야 함께 핥사냥을 즐길 수 있으며, 핥사냥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핥고 맛을 볼 수 있다.

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핥코를 잘 만들거나 좋은 재료를 구하는 법, 핥코를 놓는 위치와 시간, 핥을 쫓는 법과 핥이 날아가는 습성, 사냥개를 다루거나 동묘들과 협동하는 잊점, 핥알을 쭈는 요령과 시기, 핥영이나 핥메밀갈국수처럼 웰빙 음식을 만드는 비법 등 핥을 통해 살아가는 지혜가 넘쳐난다. 동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하나하나가 추억이면서 자원이자, 어른들은 아이나 식구들에게 물고거나 핥을 잡아서 갖다 바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잡고, 끊임없이 사냥하는 법을 더 많이 가르쳐 주었다.

사람 사는 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수렵시대에서 포노사피엔스에 이르기까지 식량은 인간에게 중요한 자원이다. 옛 사람들의 문화

진화했다고 할까. 그렇다고 밧에서 시도를 때도 없이 울던 핥이 스마트폰을 들고 성질낼 일이 아니다. 제주 핥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박물관이나 음식점에 가면, 진풍경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존이다. 늘면서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핥사냥이 옛 사람들의 문화였듯이 스마트폰 놀이를 부정하거나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면, 더 지혜롭게 즐겨야 한다. 나와 상관없거나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핥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고 풍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가 함께 할 수 있는 뚝이다. 어르신과 소통해야 정확하고,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야 더 세련되고, 요리사를 찾아가야 레시피가 더 맛깔나고, 고객을 만나야 더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기와 편리로 인해 제주 자연은 늘 양보해야 했다. 올해 초

에 희생된 원앙도 그렇고, 제주 텃새인 핥도 불안하다. 저 멀리 시베리아를 떠나 따뜻한 남쪽나라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은 비단 새들만이 아니다. 지구 곳곳에서 제주를 찾는 사람들도 그렇다. 오는 사람도 맞이하는 사람도 자기의 입장만을 우기면 모두 불행해 질 수 있다. 주어진 기회는 함께 누리고 공유할 때 더 값진 것이 될 수 있다. 나 혼자 편하자고 독점하거나 이웃과 불통한다면, 세상엔 버림받는 핥이 더 많아질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비상사태다. 그렇지 않아도 동물 질병과 관련하여 참을 만큼 참아온 농민들로서는 속이 터진다. 이럴수록 스마트폰 정보를 공유하고, 남 탓하기 전에 주변부터 잘 살펴야 한다. 우영밧이든 밧이든 중산간이든 핥 때문에 고통받거나 어리석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핥 덕분에 제주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해본다.

열린마당

문화가 생활이 되는 행복한 서귀포시



양윤경 서귀포시장

설명절도 지나 입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서귀포시는 큰 꿈을 이뤄냈습니다. 시민 모두가 소망해 마지 않던 법정문화도시 원년 지정이라는 큰 선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모으고 열정을 불태웠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법정문화도시가 뭐 대단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문화도시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문화도시지정 공모에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도전해 예비문화도시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예비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30일 마침내 법정문화도시 원년 지정을 달성해 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서 서귀포시는 향후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창출해내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의 본질이 한 사회가 가진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생각할 때, 법정문화도시 지정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 스스로가 더 많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를 통해 서귀포시민 여러분의 행복도가 향상되어가는 과정들을 기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

서귀포시는 시민·관광객이 건강하고 행복한 전국 최고 수준의 위생업소 안심환경 조성과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식중독 발생예방 사전대응으로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 등 특별 위생점검, 취약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및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전통신장 위생환경 개선, 대규모 식중독 발생 신속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 숙박·목욕·세탁업 공중위생업소 418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진행하고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285개소(대상업소의 약 5%)에 대해 위생등급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신설되는 다중이용 시설 내 전 매장 위생등급 우선구역

지정에도 서귀포시가 국내 최초 선정에 앞장선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음료류, 빵·떡류, 면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전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들 업소들에게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건전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계절별·기능별 기획 및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정 간편식, 배달 음식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지도 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또 법 질서 확립 및 건전 영업 활성화와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식품위생업소 무신고 영업, 야간 영업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2019년 식중독 발생환자가 전년 대비 92% 감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도 시민·관광객이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과 위생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 안심 환경 조성 결과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제주도정 소식. 주택 전세자금 대지원 신청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안내.

2020 여성친화도시 지원 공모사업 안내. 사업영역, 사업내용, 지원규모, 신청방법, 접수장소, 문의사항.

서귀포시정 소식.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지원사업 알림, 도외재학 중인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